



자애로운 웃음으로 제방 선객을 맞는 대원 스님은 칼날같은 법거량으로 바른 안목을 열어준다.

효봉·경봉 스님 등 선지식에게 지도 받아 고암 스님 가르침에 깨닫고 전법게 받아

대원 스님은 194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57년 상주 남장사에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수계했다. 20세때 동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 도봉산 망월사, 문경 감용사,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극락암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하면서 효봉·경봉·전

강·향곡·성철·구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1973년 당시 해인총림 방장 고암 스님의 “백수상두(柏樹上頭)에서 수방진일보(手放進一步)하야 시지중차(始只從此)로 출격대장부(出格大丈夫)라.”는 가르침에 출연해 깨닫고 오도송을 지어버리고 전법게를 받았다. 오도송은 이렇다. “갓나무머리에서 손놓고 한걸음 나가려는 말을 듣고 확연히 의심 뭉치 녹아 무너졌네.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비람 새로운데 능글히 비로사나 이마 위에서 활보함이다.”

줄탁동시 법문으로 공부 독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대원 스님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지루하게 머물렀던 장마가 물러난 7월 29일, 하늘이 청명하다. 수좌스님들이 수행하는 오등선원과 재가자들의 수행적인 오등시민 선원이 있는 공주 학림사는 출·재가를 구분하지 않는 정진과 꼼꼼한 점검, 생활 속의 실천, 회향의 가풍을 널리 펴는 참선도량. 하안거 해제를 열을 앞두고 이곳 학림사의 정진 열기는 한여름의 더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다. 입방자들의 공부자리를 점검하며 경책하는 조실 대원(大圓) 스님이 자리하고 있는 덕이다. 대원 스님은 학림사 오등선원과 오등시민선원에서 결제중인 60여 대중에 대해 해제가 다가오면서 흐트러지지 쉬운 수행의 고삐를 바짝 당긴다. 점검, 오등선원과 오등시민선원의 대중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결제에 들 때와 결제가 중간쯤 지나갈 때, 또 해제를 앞두고 대원 스님은 대중을 모아 한철 농사를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점검한다. 스님의 경책은 손뚝만 큼의 인정도 없다.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밤 11시에야 불이 꺼진 대원 스님의 방은 새벽 2시가 되기도 전 다시 켜진다. 세 시간도 채 눈을 붙이지 않은 대원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잠시 참선에 들다 3시에 선방에 오른다. 모름지기 어른은 대중보다 부지런해야 하지만 대중의 때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참선수행의 길을 열어주는 대원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위해 출·재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새벽 3시부터 출·재가 구별없이 매서운 지도 한철 농사 짓듯 제자들 공부자리 꼼꼼히 챙겨 울력 동참 주요일과...600평 텃밭서 ‘경작삼매’

해제 때에는 찾아오는 선객들이 많다. 이를 만날 때마다, 수좌는 많은데 바쁜 농사를 짓는 수좌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걱정이었다. 선객들도 다양하다. 한마디로 통하는 선객이 있는가 하면 몇시간을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이도 있다. 그 중에서도 스승 없이 공부를 한 선객을 만날 때 가장 안타깝다. 아무런 얘기해도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 할(囑)이나 방(勸)으로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소식 했다며 찾아오는 선객들도 더러 있는데, 문답을 해보면 마름질을 못해 마음 병통을 안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사람의 울력에 동참하는 일도 대원 스님의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다. 수행자에게 대중생활은 조화와 화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잠시의 여유가 생길지라도 절에서 경작하는 600평 규모의

텃밭을 일구며 수행으로 삼고 있다. 대원 스님은 해제에 앞서 수좌들에게 만행에 대한 애정어린 당부한다. “만행도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만, 설불리 만행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망 폐고 산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참선공부로 이치를 깨달은 다음 행으로써 모든 이를 이롭게 하는 공부가 만행이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고 대중 속에서도 융합하여 흔들림이 없이 여여할 때 만행에 나서기 바랍니다.” 대원 스님은 산중생활을 할 수 없는 재가 불자들에게는 “결데기 인생을 벗어버리고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살라”고 당부한다. 나의 존재를 바르게 아는 순간 삶의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참선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대원 스님의 사자후가 갖기에 오래 남는다. 글=박봉원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만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蠟燭鑄造工法으로 10,000만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들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부드럽게함과동시에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곡리 406-28
www.so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법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슬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중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를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합금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 바닥을 지안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 김원경승복 (064)724-7999